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 4,000례로 최신의료 시대 본격화

개원 6년 만의 쾌거로 수도권 서북부 로봇수술 분야 거점병원 입증  
부인암 · 신장암 · 두경부암까지, 진료과별 고도화된 수술 역량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로봇수술 4,000례를 돌파하며 최신 수술을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지난 2024년 6월 10일, 3,000례를 달성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1,000례 이상의 수술을 추가로 시행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이로써 로봇수술을 비롯한 최신 의료 분야에서 수도권 서북부 거점병원으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2019년 4월 개원 이후 줄곧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다. 개원 5개월 만에 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한 후, 최근 개원 6년 만에 4,000례를 달성한 성장의 배경에는 최첨단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Xi 2대와 암, 장기이식 등 고난도 수술 영역에서의 꾸준한 확대와 혁신이 있었다.

로봇수술센터의 연도별 수술 건수는 2019년 260례, 2020년 440례, 2021년 583례, 2022년 551례, 2023년 781례, 2024년 947례, 2025년 438례(2025년 6월 기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진료과별 수술 건수는 산부인과 2,499례, 비뇨의학과 809례, 외과 565례, 이비인후과 123례였다. 특히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는 개원 초기부터 로봇수술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꾸준히 우

수한 성적을 기록, 로봇수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고난도 수술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23년 7월,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뇌사자 로봇 신장이식에 성공했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생체 로봇 신장이식을 성공하며, 뇌사자 장기 및 생체 장기를 아우르는 로봇이식 인프라를 확립했다. 아울러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로봇 폐엽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고도화된 수술 역량과 종합적인 진료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처럼 로봇수술센터는 산부인과의 부인암 및 자궁질환, 비뇨의학과와 신장암 및 전립선암 수술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비인후과의 두경부암과 외과의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간암, 식도암 수술까지 적용 분야를 넓혀 더욱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를 시행하는 센터로 자리 잡았다.



겨자씨키움센터 공식 홈페이지

OPEN





## 여성의 삶에 함께 걷는 동반자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 산부인과 생식내분비 전문가 남궁정 교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인 산부인과 남궁정 교수는 인터뷰 도입에서 “청소년기부터 폐경 이후까지 여성의 생애 전 주기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며 따뜻한 진료 철학을 전했다.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외래 진료실에서 만난 남궁정 교수는 말보다 눈빛이 먼저 신뢰를 주는 의사였다. 인터뷰 내내 그는 수술기법이나 성과보다 ‘여성 환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했다. 마치 그가 이끄는 로봇수술의 칼끝이 기술이 아니라 공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인턴 시절 산부인과 수술에 매료된 남궁 교수는 이후 생식내분비와 호르몬 관련 질환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미세한 자궁의 구조에 빠져든 그는 학회 활동과 연구를 통해 진료 역량을 키웠다. 현재 그녀는 대한산부인과내경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자궁내막증학회,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등 국내 권위 학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서울성모병원과 성바오로병원에서의 다년간 쌓은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은평성모병원 개원과 더불어 산부인과 수술을 책임지고 있는 남궁정 교수는 현재 로봇수술센터장직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녀의 주요 진료 분야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자궁경부 및 내막의 이상 소견 등 비교적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복잡한 질환들이다. 특히 젊은 여성 환자들에게 흔한 자궁근종은 출산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수술 결정이 쉽지 않다.

“자궁을 보존하면서도 병변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개복수술보다 출혈이 적고 줄어든 수술 시간으로 더 자세히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진행해 회복이 빠른 로봇수술의 장점이 특히 잘 드러나는 분야죠.”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 분야에서 산부인과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심



“ 청소년기부터 폐경 이후까지  
여성의 생애 전 주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

에는 남궁 교수의 수술과 진료 철학이 있다. 로봇수술이 단지 고가의 최첨단 장비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진의 경험과 숙련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와의 신뢰가 더해져야 완성된다는 게 남궁 교수의 소신이다.

남궁정 교수가 강조하는 로봇수술의 강점은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에 머물지 않는다. “환자마다 병의 양상도 다르고, 자궁의 모양이나 위치, 복강 내 유착 상태 등도 다양합니다. 로봇수술은 정밀한 절개와 봉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 차이에 훨씬 더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덕분에 남궁 교수는 출혈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자궁을 보존한 수술로 많은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왔다. 넓은 진료 영역은 남궁 교수에게 수많은 도전을 안겼지만, 그는 오히려 진료 과정에서 여성들의 삶을 세심히 이해할 기회를 얻었다. 어린 환자의 성장기 증상부터 임신과 가임력 회복까지, 그의 진료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이어진다.

남궁 교수는 미국에서 로봇수술에 대한 시스템과 교육 과정을 연수하며 최신 수술 기법과 시스템 운용 분야에 관해 공부했다. 현재 연구의 초점은 자궁 손상의 회복 방법이다.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그 상처가 구조적으로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어야 임신 중 자궁과 열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를 친구나 엄마, 할머니처럼 여깁니다.” 남궁 교수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배경과 이야기, 치료 목표를 듣고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운다. 이는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대화’를 이어가는 진료 방식으로 이어진다.

특히 수술 직전, 수술 전 준비실에 손수 방문하여 긴장한 환자를 다시 마주하며 ‘똑같은 얼굴, 같은 설명’으로 안심시켜주는 그녀의 모습은 의료진으로서의 따뜻한 인간미와 세심함을 보여준다. 수술 전 손씻기와 함께 마음을 다잡는 ‘수술을 위한 기도’를 바치는 것도 그의 루틴이자 마음가짐이다.

“로봇수술은 정교한 술기와 팀워크가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로봇수술센터장으로 남궁 교수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의료진의 술기’와 ‘수술실 안팎의 협력 체계’로 꼽았다. 의사-간호사-코디네이터가 한 팀으로 움직이며, 환자 상담부터 수술실 운영, 수술 후 관리까지 원활히 이어진다. “정기적인 센터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업 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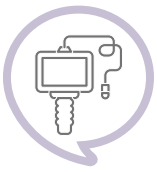
로봇수술센터는 수술 자체의 정밀도만을 추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수술 전·후 환자 교육 시스템, 다학제 협진 체계, 통합간병 서비스까지 전반적인 환자 치료 경험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남궁 교수는 이를 두고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라고 표현했다.

은평성모병원은 로봇수술 4,000례 이상의 수술 기록을 달성하며 매우 빠르고 탁월한 성과를 기록했다. “개원 이래 눈부신 성장세입니다. 수술 잘하는 의료진들이 모인 은평성모병원이어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남궁 교수는 가까운 미래에는 수술의 대부분이 로봇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로봇수술센터의 단기간 목표로 단일공 로봇수술기의 도입을 첫 단계로 계획하고 있다. “젊은 의료진을 교육시켜 센터 규모를 확장할 것이며, 생중계 수술과 원격 수술 지도 체계를 마련해 더 많은 환자와 의료진을 돕는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며, “최첨단 장비와 정교한 술기를 바탕으로, 그는 은평성모병원이 로봇수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궁정 교수는 여성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리주기와 동반 증상을 일상적으로 살피시고, 이상이 있다면 늦추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길 권합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는 작고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안은 오히려 치료를 지연시켜 더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오십시오.”

남궁정 교수는 첨단 로봇수술과 세심한 환자 중심 진료를 통해, 은평성모병원의 의료 혁신을 이끄는 얼굴이다. 의술과 인간미, 그리고 네트워크의 힘을 이어받아 그는 ‘여성의 삶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 미래 의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내시경 영상 학습한 AI, 소화기질환 미세 병변까지 정밀 진단

서울성모 이성학 교수팀, 조기 진단과 치료 성과 향상 및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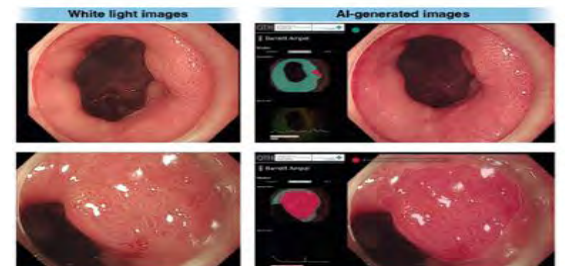
이성학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이성학 교수팀이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학병원 연구팀과의 공동으로 Barrett's esophagus(BE, Barrett's esophagus), 식도 편평세포암(ESCC, Esophageal Squamous Cell Cancer), 조기 위암(EGC, Early Gastric Cancer)을 포함한 상부 위장관 질환에서 AI의 활용 가능성과 임상 적용에 대한 최신 연구를 소화기내과 의사와 병리 의사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인공지능(AI)의 접목을 통해 내시경 검사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을 높이고, 진단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위암을 비롯한 상부 위장관 암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나 병변이 평평하고 모호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숙련된 전문의조차 내시경 검사에서 놓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AI는 방대한 내시경 영상 데이터를 학습하여 육안으로는 놓치기 쉬운 미세 병변까지 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조기 암의 침윤 깊이를 예측하거나 모호한 병변 경계를 식별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이 98% 이상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기록했다.

병리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도 AI의 활용 가능성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AI는 Whole-Slide Image(WSI) 기반의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분석해 암 전 단계(이형성)와 암 조직을 자동 분류할 수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Barrett's esophagus 조직을 대상으로 83~95%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한 사례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내시경 영상과 병리 이미지를 함께 분석하는 멀티모달 모델도 개발되고 있다. 내시경 영상으로는 병변의 위치와 외형을, 병리 WSI를 통해서도 세포 수준의 구조와 분화를 동시에 판단할



▲실제 병변을 촬영한 내시경 검사사진(왼쪽)과 신생물을 예측하여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오른쪽)

으로써 보다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멀티모달 AI 모델이 내시경 영상만 사용할 때보다 병변 분류 정확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Gastroenterology》(IF=26.3)에 게재됐다.



## 유전자 교정 치료의 핵심 기술, 체내 전달 시스템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구희범 교수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생체 전달체 연구 동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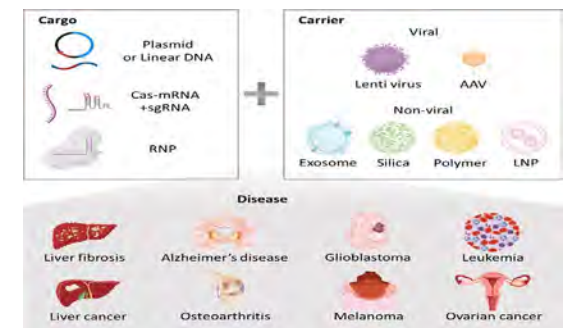
구희범(왼쪽)·김영광 교수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과대학 의생명과학실 구희범 교수(교신저자, 기초의학 사업추진단 내 합성생물학 사업단장), 병리학교실 김영광 교수, 이예은 연구원(공동 제1저자), 김부건 박사(공동 제1저자)팀이 Applied Physics Reviews 저널의 초청을 받아 CRISPR 편집을 위한 생체 내 전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리뷰 페이퍼를 발표했다. 유전자 편집 기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달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를 제시했으며, 나아가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을 통

한 다양한 난치병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전자 편집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는 연구는 다양한 질병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관련 물질들을 생체 내에서 원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예측되는 방향 및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다. 본 리뷰의 초청은 미국 하버드대 물리학과 David Weitz 교수가 주관한 특집 이슈에서 이루어졌으며,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당 이슈의 첫 번째 논문으로 발표됐다.

구희범 교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유전자 교정은 다양한 난치병들의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관련 핵심 기술인 전달체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실제 임상 적용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중견연구, 유전자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논문은 현재 응용물리 분야 국제 학술지 《Applied Physics Reviews》(IF=11.9) 6월호에 게재됐다.



## 초고령사회 진입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서울성모 신현영 교수팀,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기’ 위한 의료체계 실현 제안



가톨릭대 의대 김광만 인문사회의학 교수·박병태 보건 의료경영대학원 교수·김철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센터 및 가정의학과 교수, 최창진 통합 암 건강 클리닉 및 가정의학과 교수, 신현영 가정의학과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연구팀은 초고령사회 지역 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제시했다. 2025년에 접어들며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한국 의료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은 만큼, 선진적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접근법과 체계적 변화가 필요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 대응하여 3차 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의료와 요양을 지역 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 AIP)’ 개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통한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기반 통합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전환기 돌봄(Transitional Care) 강화를 통해 집중치료 관리를 개선하고 재원일수를 단축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본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내 재택의료센터 설립을 통해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의료정책에 적응할 수 있는 1차 및 2차 의료와의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책연구소 설립과 통합 인력 양성을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 조직과 협력하여 재택의료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Healthcare》(IF=2.4)에 최근 게재됐다.



## 여의도성모

# 최신 고정밀 방사선 치료기 '트루빔' 도입

## 치료 정밀도·속도·환자 편의성까지 향상 주요 암에 초정밀 방사선 치료 제공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최근 최신 고정밀 방사선 치료기 '트루빔(TrueBeam)'을 본격 가동했다. 이번 도입은 정밀한 암 치료와 환자 중심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방사선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트루빔은 림프종, 유방암, 직장암, 폐암, 두경부암, 간암, 전립선암, 뇌종양 등 주요 암에 대한 초정밀 치료가 가능한 최신 선형가속기(Linear Accelerator)다. 특히 영상유도방사선치료(IGRT) 및 체부정위방사선치료(SBRT) 기능이 강화되어, 건강한 조직의 손상은 줄이고 암세포에는 정확하게 고용량의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표면유도 방사선치료기법이 함께 도입되어 방사선 치료 시 필수적으로 여겨졌던 치료 마커를 환자 몸에 그리지 않고도 정밀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 환자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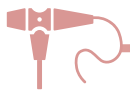
이번 신규 장비 도입으로 기존보다 짧은 시간 내에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자의 치료 피로도를 줄이고 진료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시간 영상 촬영, 표면 유도 및 자동 교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세한 움직임에도 치료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 폐·간처럼 움직임이 많은 장기기에 대한 치료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를 비롯한 암 진료센터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환자 개개인에 맞춤형



된 통합 암 치료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자영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환자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의료진에게는 정밀하고 효율적인 치료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성모병원은 이번 장비 도입을 계기로, 환자의 삶의 질을 지키는 치료 중심 병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부천성모병원

# 내시경적 연하검사 6,000례 돌파

## 경인지역 대학병원 최다 기록 연하장애 환자에 정확한 검사와 맞춤 치료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연하장애(삼킴곤란)클리닉 임선 교수가 시행하는 내시경적 연하검사가 최근 6,000례를 돌파하며 경인지역 대학병원에서 최다 검사 건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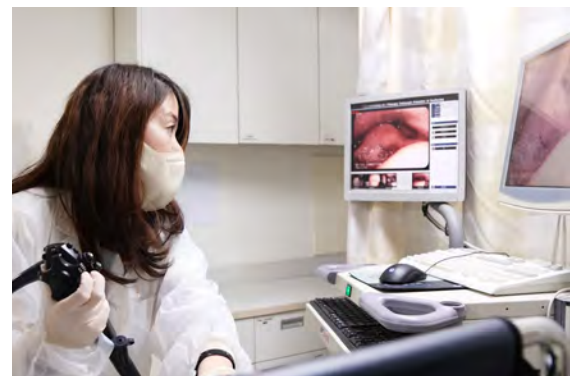
내시경적 연하검사는 코로 굴곡성 내시경을 통과하여 연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법으로, 해외에서도 중환자에게 안전하

게 실시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연하장애(섭식장애, 삼킴장애, 신경학적 문제로 입에서 목으로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는 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 검사다.

부천성모병원은 2010년 경인지역 최초로 부천성모병원 연하장애(삼킴곤란)클리닉을 개설했으며, 2012년에는 경인지역 최초로 내시경적 연하검사를 도입, 뇌졸중 환자 및 삼킴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개인별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내시경적 연하검사를 시행하는 연하장애(삼킴곤란)클리닉 임선 교수(재활의학과)는 국내 최초로 독일뇌졸중학회-독일신경과학회 내시경적 연하검사(Fiberopt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FEES) 자격을 획득, 국내 연하장애 분야에서 최첨단 술기 도입을 통한 연하장애 환자 기능회복을 선도하고 있다.

임선 교수는 "연하장애(삼킴곤란)는 연하장애 전문의의 진료와 내시경적 연하검사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전히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낮



은 접근성과 인식 부족으로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연하장애 환자 수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연하장애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은평성모병원

# 혈액병원, 조혈모세포이식 500례 달성

## 2년 연속 전국 6위 기록 고난도동종이식비중확대및고위험환자성공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이 조혈모세포이식 500례를 달성하며, 중증혈액질환 치료 중심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특히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조혈모세포이식 건수 전국 6위를 기록하며, 수도권 서북부 중증혈액질환 치료의 핵심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첫 이식 시행 이후 6년 만에 이룬 이번 성과는 고난도 동종이식 확대, 고령·고위험 환자 대상 치료 성과, 다학제 맞춤 진료 역량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다. 실제로 총 500건의 이식 중 자가이식은 232건, 동종이식은 268건으로, 동종이식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중 비혈연 간 이식이 90건, 형제 간 7건, 반일치 99건, 제대혈 이식이 8건으로 집계되며, 다양한 형태의 고난도 이식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고난도 치료에 해당하는 반일치 이식과 비혈연 이식의 비율이 높아, 공여자 조건이 까다로운 환자들에게도 효과적인 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더불어, 감염 예방 및 정밀한 환자 관리가 요구되는 제대혈 이식을 꾸준히 시행하며 공여자를 찾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고령 환자 대상 이식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 환자 대상 이식은 총 96건, 이 중 70세 이상 환자도 15건에 달한다. 이는 고령·고위험군 환자들에게도 성공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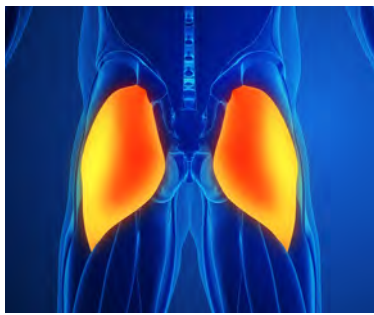
병원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환자 관리 역량을 보여준다.

혈액내과 김병수 교수는 "이번 500례 달성은 이식 전 철저한 진단부터 이식 후 회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다학제 협진 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치료의 난이도나 환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환자 개개인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정밀하고 따뜻한 진료를 통해 최고의 치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미있는 인체 이야기

## 기억상실증이라고요? 저 말고 제 엉덩이가요?



현대인에게 매우 흔하지만, 이름만큼은 낮은 현상이 있다. 바로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다. 엉덩이가 어떤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하겠지만 '엉덩이 기억상실증'은 엉덩이에 힘쓰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의학적으로는 '대둔근·햄스트링 조절 장애'라고 불린다. 걷거나 다리를 들 때 허벅지에만 통증이 있고 엉덩이는 반응하지 않는다면, 엉덩이 근육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과 적은 활동량이 주요 원인으로, 허리 통증, 골반 비틀림, 고관절과 무릎 통증 등 다양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엉덩이는 신체 근육의 약 40%가 집중돼 있고, 특히 대둔근은 상·하체를 연결하고 척추와 골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걷기, 뛰기, 앉기, 일어나기 등 대부분의 움직임이 엉덩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엉덩이 근육은 척추 안정과 신체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능이 떨어질 경우 허리, 고관절, 무릎 등 주변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줘 통증이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엉덩이 기억상실증은 대둔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햄스트링을 포함한 다른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돼 근육 불균형과 통증이 발생하는 상태. 엉덩이 모양이 납작해지고 탄력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등반기에 기대 허리를 구부리고 오래 앉아 있을 경우 엉덩이 근육 활성도가 저하된다. 이로 인해 다리를 들 때 엉덩이 대신 허벅지 뒤쪽이나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된다.

치료는 운동 재교육이 중심이다. 약해진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주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전도 피드백 훈련, 전기 자극 치료, 자세 교정 등을 통해 기능을 회복하고, 보행 분석을 통해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도 교정할 수 있다.

엉덩이 근육을 기르는 운동으로는 스쿼트, 브릿지, 힙 어브덕션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스쿼트는 두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다.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듯 앉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다. 매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서 있거나 걸을 때는 의식적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고, 계단 오르기 등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도움이 된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기보다는 자주 움직여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감수: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재원 교수)



CMC 속으로

## 우리나라 최초로 류마티스 진료를 시작했던 CMC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40년 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류마티스 진료를 시작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꾸준한 진료와 연구를 거듭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류마티스 치료의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내과 외래(강남성모병원)에서 류마티스 환자의 진료를 시작했고, 1989년에는 류마티스 클리닉을 개설하여 류마티스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1998년부터는 류마티스센터로 승격되며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아시아태평양 류마티스학회에서 선정하는 진료, 연구, 교육 부문의 최우수센터로 국내 최초 지정되어,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센터임을 입증하고 있다.



▲1998년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관절염 진료 모습

현재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모두에서 류마티스내과 진료가 이루어지며,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전신홍반루푸스, 골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성 관절염, 기타 골관절 질환 및 자가면역질환(전신 경화증, 쇼그렌증후군, 염증성 근육염, 베체트병, 혈관염) 등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특히 전신을 침범

하는 류마티스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안과를 비롯한 타 과와의 다학제 진료로 수술 및 재활, 합병증 치료 등을 병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치료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료뿐만 아니라 연구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지닌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류마티스연구센터는 2002년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에 의해 설립돼 기초/의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기법의 응용과 산업체와의 협력 연구를 통한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가면역 분야 최고의 기초 면역학 연구진과 류마티스 질환 최고의 임상 연구진이 함께 모여 매년 우수 연구 결과를 해외 학술대회와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류마티스 연구센터로 발전해 왔다. 최근 대학 부설연구소 정기 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획득하며 '성의 최우수 연구소상'까지 수상한 바 있다.

##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

응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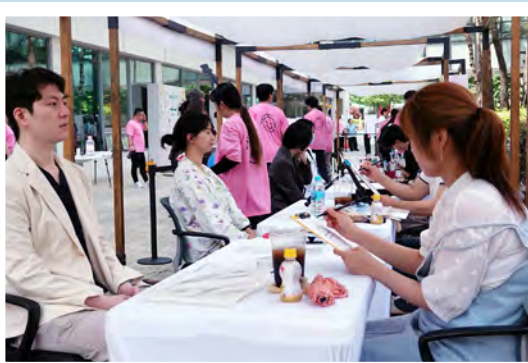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하신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 (2025.7.24.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자난호 정답 및 당첨자

고\*림  
이\*경  
이\*지

▶ 당첨자분들께는 휴대전화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 “바쁜 일상 속 서로에게 건넨 따뜻한 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병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맙습니다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 우리답게’라는 주제로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교직원 간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병원 본관 앞 동문의 숲과 성모의 공원 포토존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이틀간 캐리커처, 캘리그래피, 두더지게임, 풍선아트, 인형뽑기 등 다양한 부스체험과 간식 이벤트, 포토존, 온라인 이벤트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2,000명 이상의 교직원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상**



## 부서/단체(정체성 부문)

1984년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된 **부천성모병원 생가자선회**는 자선, 장학, 정신건강 보호, 해외 의료선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40년간 지역 사회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교직원 기반 자선단체다. 교직원이 후원자이자 활동가로 직접 참여하는 체계를 통해 병원 내 자선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선 생태계를 조성하며 공동체 기반의 영성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유니스트**

2005년 설립된 **성의교정 START 의학시뮬레이션센터**는 실기 기반의 임상교육을 중심으로 생명 존중 의식과 전문성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왔다.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과 더불어 의료윤리, 환자안전, 의사생명 교육 등을 통합한 실천적 교육모형을 통해 전인치유와 의료인의 사명감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다.

## 부서/단체(정체성 부문)



**의정부성모병원 영성간호부**는 수도자를 중심으로 한 전담조직으로, 영성간호, 호스피스, 가정간호, 윤리 실천 기능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 주기적 영성 돌봄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생명존중과 영성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장려상



**여의도성모병원 원목팀**은 병원 내 전인적 영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며, 가톨릭 의료기관의 정체성과 영성을 실천하는 사목활동을 지속해 왔다. 병동 사목 활동과 함께 기도나루, 성경 말씀 · 성화 게시, 전례 주기를 고려한 프로그램, 교직원 피정, 복음화 프로그램, 임상부서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목활동이 임상 현장과 조직문화에 정착되도록 기여해 왔다.

영성 연구  
연구 방법  
함께 생각  
CMC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CMC)은 가톨릭대학교 오너버스 파크 컨벤션홀에서 '설날이날 기념식'에는 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연구소장, 영성구현실장 김평만 신부, 기획조정실장 민영호, 의료보조요원 보직자와 산하 8개 병원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 회갑교수 수당 증정, 40년·35년·30년 근속 기념품 증정,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가톨릭대학교 이화성 의무부총장 겸 의료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사회정  
료 시스템과 국제 수준의 연구 역량, 체계적  
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  
간 중심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사람  
가겠다."고 말했다.



## 연구업적 우수 교원상

가톨릭중앙의료원 설립 89주년 기념식에서는 연구 업적 우수 교원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됐다.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은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발굴하고 교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연구 업적 우수 교원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성의 우수 연구자상'에는 임현국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총 11편의 논문을 등재해 IF 누계 최고점(49.77)으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 《European Heart Journal》(IF 37.6)지에 논문을 등재한 이성수 교수(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는 최고 IF를 기록해 '성의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게 됐다. '성의 논문 피인용상'은 정찬권 교수(서울성모병원 병리과)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서 대학 부설연구소 정기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획득한 연구소에게 시상하는 '성의 최우수 연구소상'은 가톨릭류마티스연구센터(센터장 박성환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가 수상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유선희 데레사 암 연구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한지원 조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와 정요셉 부교수(의정부성모병원 병리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학술상은 유방암으로 임종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유족이 본교 의과대학에 기부한 연구기금으로 2012년 제정되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 연구업적 우수 교원상



### 개인(정체성 부문)

우수상



**부천성모병원 병동간호2팀 이정옥 UM**은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간호 실무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 중환자실과 응급의료센터 등 중증환자 진료 영역 체계 개선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병동 관리자 역할을 맡아 현장 중심의 영성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간호사들의 신앙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이진석 교수**는 오랜 기간 병원에 재직하며 고난도 척추 수술을 포함한 전문 영역 진료에 헌신해 왔고, 의료급여 환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진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중환자실장, 임상과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에 기여했으며, 병원 내 소통과 연대를 위한 문화 활동에도 참여해 공동체 중심의 영성을 실천해 왔다.

### 개인(정체성 부문)

장려상



**성빈센트병원 인사팀 장진환 차장**은 병원, 본당, 지역 사회를 아우르며 신앙과 직무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천해 온 교직원으로서 본당 전례·교육활동, 지역 자원봉사단체 창설·운영, 병원 내 수련교육·복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동체 중심 문화를 형성해 왔다. 특히 신앙에 기반한 지속적 실천은 병원 내 생명존중과 상호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 구현과 관점으로 생겨온 89년

### 가톨릭중앙의료원 설립 89주년 기념식 개최

MC)이 설립 89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2일 가톨릭 8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창간 교수, 병원경영실장 배원일 신부 등 주빈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영성구현상 시상, 근속 교직원 표창, 연구업적 우수교원상 시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보건정책에 수많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동시에 첨단 진료인 교육 시스템 등 질적인 도약을 위한 자체 노력으로 우리는 의학의 발전 속에서도 결코 인성을 위한 의료, '신앙 안의 치유'를 실현해 나



제89주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설립기념식

2025.06.12 (목) 15:00 | 을지로3가 본관 대강당





**성의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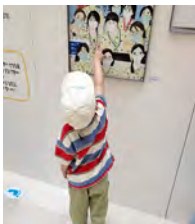
**노태호 명예교수 심전도 관련 신간 출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노태호 교수가 신간 《홀터를 넘어, 웨어러블 심전도의 혁신》을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된 책에서는 일상의 심장 리듬 이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존의 10초 표준 심전도나 24시간 홀터 검사를 넘어, 웨어러블 패치형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한 차세대 심장 건강관리 기술을 보여준다.

**서울성모병원**

**‘술술바람’ 5주년 기념 전시**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 ‘술술바람’은 출범 5주년을 맞아, 최근 전시회 ‘바람을 따라 함께 걸은 길’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병원에서 긴 치료 여정을 예술로 풀어낸孩子们的 회화, 클레이 조형 작품과 ‘술술바람’ 활동 사진을 통해 아이들의 감정 변화와 회복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연구중심병원 도약 선포식**



서울성모병원은 ‘글로벌 연구중심병원 도약 선포식’을 열고 의료와 연구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그 비전과 전략을 대내외에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

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중심병원은 슬로건인 “글로벌 융합 연구를 위한 혁신과 성장으로 미래 희망의 빛을 밝히겠습니다.”를 통해 병원의 사명과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영등포구의사회 학술대회 성료**



여의도성모병원은 최근 ‘2025 영등포구의사회 춘계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열렸으며, 영등포구 내 병·의원장 80여 명이 참석해 최신 의료 지식 공유와 지역 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술발표와 토론 이후에는 회원 간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져 지역 의료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영등포·마포소방서와 ‘생명이음’ 행사 개최**

여의도성모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영등포소방서와 마포소방서를 대상으로 ‘생명이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살시도자 구조·이송을 담당하는 소방기관과 치료·회복을 지원하는 병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돼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영등포소방서 120명, 마포소방서 77명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의정부성모병원**

**찾아가는 건강강좌 실시**

의정부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정재호 교수는 최근 경기도 소재



대한노인회 의정부시 지회에서 지역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쉽게 알아보는 만성질환 관리」를 주제로, 당뇨병과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만성질환의 원인과 예방,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은평성모병원**

**최신 암치료법 건강강좌 성료**



은평성모병원 암센터 주최로 열린 ‘함께 가자 건강강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강좌는 병원 G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지역 주민과 암 환우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우리 동네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는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신 치료 동향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환자 안전 문화 확산 위한 PSI 행사 개최**

은평성모병원은 지난 5월 29일,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부서별 환자안전 지킴이 PSI(Patient Safety I.D.O.L) 킥오프’행사를 열고 환자 안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PSI는 병원 내 환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 및 실질적인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환자 안전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정**



\*기관별 / 가나다 순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개선 유공 장관 표창**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황보미 팀장이 2025년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개선 유공자로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황보미 팀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4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 선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조미라 교수 연구팀이 ‘비멘틴 병원 표적 나치 자가면역질환 전신경화증 치료용 나노융합 백신 개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에 선정됐다.

**국제 척추학술지 편집위원 위촉**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가 세계 주요 척추 관련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국제학회 세션 의장으로 연이어 초청되며, 척추 내시경 수술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학문적, 임상적으로 국제 내시경 척추수술 분야를 선도해 온 바 있다.

**대한슬관절학회 최우수포스터상**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고인준·김용덕 교수팀이 2025 대한슬관절학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무시멘트형 무릎관절 치환술에 적합한 골강도 측정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대한간학회 우수구연상**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순규 교수 연구팀이 대한간학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간이식 환자의 면역관용 달성에 조절 B세포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시아태평양 비만대사외과학회 우수구연상**



성빈센트병원 위장관외과 서지원 교수가 2025 아시아태평양 비만대사외과학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서 교수는 ‘비만대사수술 후 위내시경 소견의 현황 및 임상적 의의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학술적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한인테벤션영상기술학회 올해의 사례상**



성빈센트병원 심뇌혈관병원 1운영팀 김재훈 책임이 대한인테벤션영상기술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올해의 사례상’을 받았다. 김 책임은 ‘중증 하지 말초동맥질환에서 반복적 PTA 치료 경험: Atherectomy 및 약물방출 풍선 치료의 역할’ 발표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아시아태평양비만대사외과학회 회장 취임**



대전성모병원 외과 이상균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태평양비만대사외과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국내 비만대사수술의 선구자로 지난 2003년부터 비만대사수술을 시작해 온 이 교수는 8대 회장으로 취임, 2028년까지 3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대한소아신경학회 최다논문상**



대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지윤 교수가 제58회 대한소아신경학회 연례 심포지엄 및 제1회 동아시아 소아신경학 학술대회에서 최다논문상을 수상했다. 한 교수는 지난 1년간 소아신경학 분야에서 총 9편의 논문을 SCIE급 저널에 발표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 서울성모병원

# 김일해 화백 작품 '5월 어느 날' 기증받아

서울성모에서 치료받은 생명, 그림으로 보답  
2층 심뇌혈관병원 앞 전시해 치유와 위로 전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김일해 화백의 작품 기증식을 열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로와 치유를 전할 예술작품 '5월 어느 날'을 기증받았다.

행사는 기증의 의미와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으

며, 기증받은 작품 '5월 어느 날'은 화사한 5월의 정원에서 일상의 고단함을 벗고 여유를 즐기는 순간을 담아낸 서정적인 작품이다. 서울성모병원은 해당 작품을 2층 심뇌혈관병원 출입구 벽면에 전시해,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예술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일해 화백은 "언제나 삶에 지친 사람들과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며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며 저를 살려주신 의료진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림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다."고 기증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제 그림이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윤승규 병원장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작품이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을 비롯해 영성부



원장 원영훈 신부, 간호부원장 박현숙 수녀, 이인석 평생건강 증진센터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와 함께 기증자 김일해 화백, 그의 배우자인 배정강 서양화가, 아이패밀리에스씨 김태욱 회장, 김윤수 부장, A플러스에셋 홍승우 사업단장, 박양희 이사 등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의료 취약계층과 의학 연구에 힘이 되기를 바라며

(주)유풍, 서울성모병원에 총 2억 원 기부

세계적인 모자 제조기업 (주)유풍이 최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불우 환우 치료와 의학 연구를 위해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주)유풍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영성 교육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 지난 10년간 장학기금을 후원해 왔으며, 국내·외에서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주)유풍 조병우 회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서울성모병원에 기부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기부가 의료 취약계층분들의 치료와 의학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은 "기부금은 불우 환우를 위한 의료 지원과 의학 연구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길 바랍니다

가톨릭대 의대 16회 동문, 의대발전기금으로 7천만 원 쾌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6회 졸업생들이 지난 5월 12일(목) 모교인 가톨릭대 의과대학 후배들을 위해 의대발전기금(위임)으로 7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16회의 졸업 50주년을 맞이해 이루어졌으며, 기부금 전달은 졸업 5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이뤄졌다.

동기를 대표해 기부금을 전달한 16회 김경애 동문은 "졸업 후 50년 간 의사로 생활하면서 늘 느껴온 모교에 대한 감사함을 작은 정성으로 표현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모든 졸업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교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을 전했다.

이에 이화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기부해 주신 기부금은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 2025년 5월 신규 약정자 명단



| 가톨릭중앙의료원             |              |             |            |
|----------------------|--------------|-------------|------------|
| • 생명존중기금(의료원위임)      |              |             |            |
| 익명(의료원)              | 700원         | 숙편한상성내과     | 10,000원    |
| • 연구기금(위임)           |              |             |            |
| (재)우덕재단              | 100,000,000원 |             |            |
| • J.S.Bach 자선기금      |              |             |            |
| 임윤찬&목프로덕션            | 100,000,000원 |             |            |
|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소아)    |              |             |            |
| 국민아                  | 10,000,000원  | 김진희         | 1,000,000원 |
| 대학(성의교정)             |              |             |            |
| • 대성마이맥 장학금          | (주)디지털대성     | 5,046,900원  |            |
| • 사서팀(도서관)           | 김상현          | 1,000,000원  |            |
| • 의과대학 장학기부금         | 강은진          | 100,000원    |            |
| • 의대발전기금(위임)         |              |             |            |
| 가톨릭대 의과대학 16회 졸업생 일동 | 70,000,000원  |             |            |
| 최인영                  | 1,200,000원   |             |            |
| • 원내리 장학금            | 간호대학 동창회     | 9,200,000원  |            |
| 서울성모병원               |              |             |            |
| • 병원발전기금(위임)         | (주)유풍        | 10,000,000원 |            |

|                      |              |            |             |
|----------------------|--------------|------------|-------------|
| 심준택                  | 10,000,000원  | 유순일        | 1,000,000원  |
| 이재윤/김희민              | 1,000,000원   | 정영훈        | 1,000,000원  |
| • 성모자선회              |              |            |             |
| 서울성모병원 영남지역 산발 피해 돕기 |              |            |             |
| 특별성금 교직원             | 496명         |            | 14,400,000원 |
| 원영훈                  | 50,000원      | 차상우        | 50,000원     |
| 김남희                  | 50,000원      | 차서영        | 50,000원     |
| 차예준                  | 50,000원      |            |             |
| • 호스피스 발전기금          |              |            |             |
| 익명2                  | 670,655원     | 김용수        | 1,000,000원  |
| 김종선                  | 200,000원     | 김종열        | 500,000원    |
| 정은이                  | 200,000원     | 김효정        | 매월 10,000원  |
| • 위임(기부자별관리)         |              |            |             |
| (주)유풍                | 100,000,000원 | 정순자        | 500,000원    |
| • 위임(선입선출관리)         |              |            |             |
| 최성현                  | 1,000,000원   | 김재우        | 매월 10,000원  |
| • 한물(지정기부금)          |              |            |             |
| (주)스트레스 컴퍼니          |              |            | 683,000원    |
| • 사회사업팀 발전기금         | 최성현          | 1,000,000원 |             |

| •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술술바람) 발전기금 |             |     |             |
|-------------------------|-------------|-----|-------------|
| 이소율                     | 1,000,000원  |     |             |
| • 소아 질환 지정(기부자별관리)      |             |     |             |
| 신지선                     | 1,200,000원  |     |             |
| KRX국민행복재단               | 10,000,000원 |     |             |
| • 소아위임(기부자별관리)          |             |     |             |
| 장성명                     | 1,052,500원  |     |             |
| • 신경외과 연구기금             |             |     |             |
| (주)유풍                   | 90,000,000원 |     |             |
| • 이비인후과 발전기금            |             |     |             |
| 유순일                     | 9,000,000원  | 정영훈 | 9,000,000원  |
| • 혈액내과 연구기금             |             |     |             |
| 이재윤/김희민                 | 9,000,000원  |     |             |
| 여의도성모병원                 |             |     |             |
| • 성모자선회                 |             |     |             |
| 유덕래                     | 매월 10,000원  |     |             |
| • 여의도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             |     |             |
| 김동우                     | 1,000,000원  | 김현수 | 20,000,000원 |
| 김홍배                     | 5,000,000원  | 안중수 | 20,000,000원 |
| 정수진                     | 1,000,000원  |     |             |
| 의정부성모병원                 |             |     |             |
| • 성모자선회                 |             |     |             |
| 김경희                     | 50,000원     | 김지숙 | 매월 5,000원   |

| 부천성모병원        |             |     |            |
|---------------|-------------|-----|------------|
| • 성가자선회       |             |     |            |
| 익명1           | 1,000,000원  |     |            |
| • 성가자선회       |             |     |            |
| 익명2           | 2,000,000원  |     |            |
| 권희경           | 매월 5,000원   | 김나래 | 매월 5,000원  |
| 김상미           | 매월 5,000원   | 김수빈 | 매월 5,000원  |
| 김윤서           | 매월 5,000원   | 김지현 | 매월 10,000원 |
| 박정환           | 매월 5,000원   | 유미나 | 매월 5,000원  |
| 정지윤           | 매월 10,000원  | 조용선 | 매월 5,000원  |
| 은평성모병원        |             |     |            |
| • 병원발전기금(위임)  |             |     |            |
| 서클라라          | 10,000,000원 | 이미형 | 1,000,000원 |
| • 은평성모자선회     |             |     |            |
| 송효정           | 매월 5,000원   | 이미우 | 매월 50,000원 |
| 이채영           | 매월 20,000원  | 안창진 | 200,000원   |
| 이제훈           | 2,000,000원  | 이현숙 | 200,000원   |
| • 호스피스 발전기금   |             |     |            |
| 권영자           | 매월 10,000원  | 엄도경 | 매월 10,000원 |
| • 은평성모병원 자선기금 |             |     |            |
| 익명            | 100,000원    |     |            |
| 이양춘           | 365,000원    | 이창석 | 매월 30,000원 |

##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2~3, 7995~6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바일 후원  
바로 가기

# “70<sup>th</sup>년, 치유의 길을 걷다”

• ANNIVERSARY •

인천 최초 대학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성장의 기반이 된 신뢰와 헌신

1955년 6월 27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개원했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첨단 의료와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돌본다’는 사명을 품고 출발한 인천성모병원은 올해로 개원 70주년을 맞았다. 그간 수도권 서북부 지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 중심,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정진해 왔다.

70년의 시간은 단순한 역사가 아닌, 인천 의료의 큰 줄기를 이룬 여정이었다. 1962년 인천 지역 최초로 가톨릭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편입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천주교 인천교구로의 경영권 이양, 2008년 성모자애병원에서 인천성모병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후 CMC(가톨릭중앙의료원) 부속 병원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명실상부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기반을 닦았다. 이와 함께 최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각 진료과의 전문 의료진 확보를 통해 고난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 역량도 강화해 왔다.

## 뛰어난 진료 성과와 의료의 질 향상

진료 역량 역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며 고위험 중증질환치료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병원의 전문성과 진료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으며, 이후 진료 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뇌혈관질환, 뇌기능장애, 뇌종양 등 다양한 뇌질환의 전문 진료와 연구, 교육, 재활이 가능한 뇌병원을 개원하며 중증 뇌질환 분야에서 특화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도약했다. 3D MDCT, 3T MRI, PET-CT, SPECT 등 첨단 영상 장비는 물론, 뇌혈관조영장비, 수술 중 감시장치, 미세현미경 등을 도입해 정밀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뇌파검사, 근전도검사, 수면다원검사 등 다양한 신경생리검사와 함께 전기자극치료(DCS), 저초음파자극치료를 통한 치매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학제 협진 체계를 고도화하며 환자 맞춤형 통합 치료를 실현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료계에 전례 없는 도전이었지만, 인천



## 혈액암 치료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인천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기관 승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본관 7층에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을 개소하고, 중증 혈액질환 환자를 위한 고난도 치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조혈모세포이식병동은 총 6개 병실, 10개 병상 규모로 운영된다. 이 중 1인실 4개를 포함해 무균 치료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 감염 위험도 줄였다. 무균병동은 엄격한 설계 기준에 따라 외부 감염 차단을 위한 양압 시스템, 고성능 HEPA 필터, 감염 통제 장치 등을 갖춰 최고 수준의 감염 관리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무균 복도와 환자 전용 휴게실을 마련해 오랜 격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수준 높은 의료와 간호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의료 인력도 배치했다.

진료는 혈액내과(양승아, 이종혁 교수), 소아청소년과(김성구 교수)를 중심으로,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다학제 협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제2별관 2층에는 성분헌혈실과 세포처리실도 신설됐다.

성분헌혈실에는 혈액성분 분리채집 장비(Spectra Opta)를 갖추고, 세포처리실에는 면역세포 선별 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이식 과정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인천성모병원은 이번 병동 개소로 혈액암 등 중증 혈액질환 치료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 진료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인프라 부족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장거리 이동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인천·부천 지역 환자들에게

### 조혈모세포이식병동(BMT) 개소



성모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음압병상 확충, 선별진료소·재택치료센터 운영 등을 신속히 갖추며 지역 의료의 공백 없이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헌신은 환자와 지역 사회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었고, 병원의 회복탄력성과 사명감이 재확인되는 계기가 됐다.

최근에는 인천 지역 최초로 로봇수술 3,800례를 달성했고, 고난도 심장 시술인 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TAVI) 150례, 뇌혈관수술 5,000례를 돌파하며 고난도 치료 영역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로봇수술 분야는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활발하게 시행되며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로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의료 질 평가 1~나등급, 5대 암 적정성 평가 1등급 등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종 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병원의 핵심 경쟁력인 의료 질 향상과 진료 수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 미래를 위한 'BT 전략'... 사람 중심 병원으로

인천성모병원은 2022년부터 중장기 경영방침으로 'BT(Better Tomorrow : 인재경영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기본경영, 공감경영, 인재경영, 행복경영이라는 4대 핵심 추진전략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체계 아래, 병원의 운영 방향과 조직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의료기관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상과별 전문 인력 확충, 부서별 관리자 리더십 강화, 시스템 개선 등 전방위적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 전체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 환경 친화적 병원 환경 조성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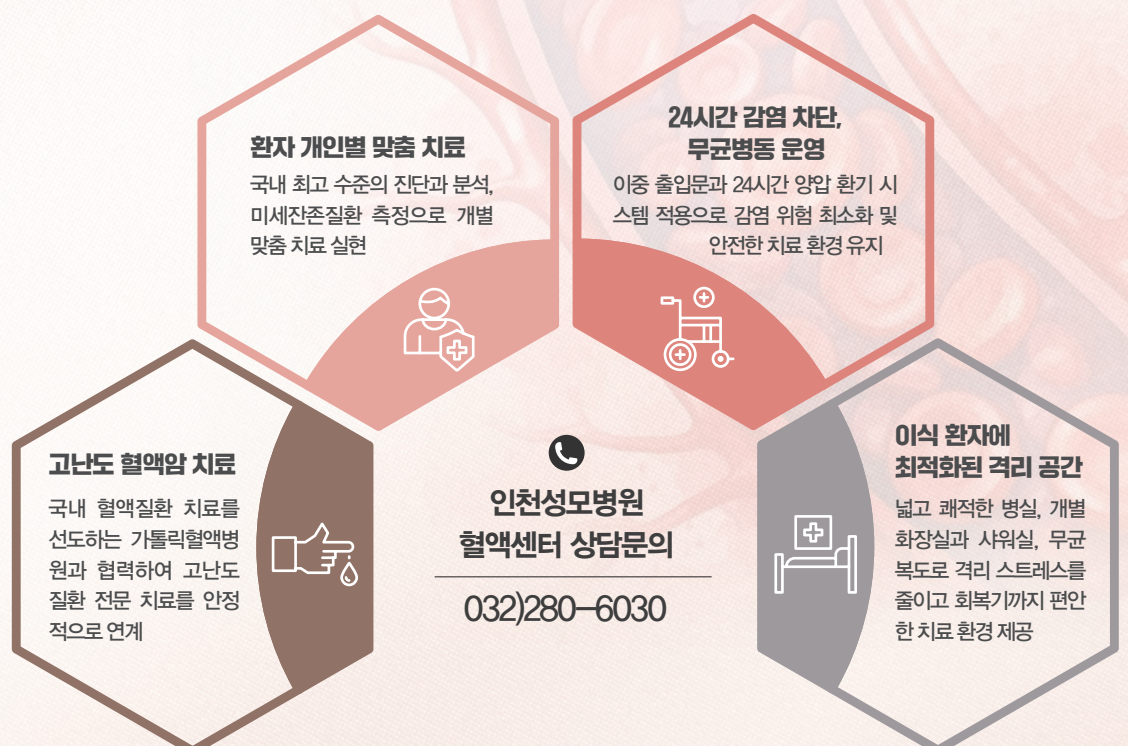


**홍승모 몬시뇰 인천성모병원장**은 “70년 역사의 저력은 교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설립 이념과 핵심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환자 중심의 생명존중과 최상의 진료 시스템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며, “우리 병원이 걸어온 길은 단지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CMC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가톨릭 의료 브랜드로 성장하는 여정의 일부다. 앞으로도 환자와 지역 사회를 위한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아 혈액내과 교수는 “조혈모세포이식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치료로, 전담 병동과 다학제 협진 체계는 환자 안전과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병동 개소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이식 치료가 가능해졌다. 특히 가톨릭대학교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혈액질환 치료 노하우와 표준화된 이식 시스템을 접목해, 인천 지역에서도 서울 수준의 고난도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홍승모 몬시뇰 인천성모병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병동 개소를 통해 중증 혈액질환 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교수업적평가 포상식 개최

교원 평가의 객관성·체계성 높여  
교원 업적 활동 고취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은 최근 '2025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교수업적평가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처음 도입된 교수업적평가의 포상제도로 교원 평가의 객관성과 체계성을 높이며 의과대학/간호대학, 산하 병원 교원의 뛰어난 업적을 격려하고, 다른 교원들에게도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네트워크를 운

영하고 있다. 성의교정(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비롯하여 산하 8개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속한 교원들은 환자 진료뿐만 아닌, 학생을 가르치고, 새로운 의학을 연구하는 일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교원들의 노력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성과를 낸 교원들을 선정해 포상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 취지다.

가톨릭대학교 연구처장 조석구 교수는 "우수한 교수진의 노력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경쟁과 성장을 이끄는 것이 대학과 병원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며 이번 포상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5년도 교수업적평가 포상의 최우수상은 2024년도 평가 결과 총점 1위를 달성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중앙내과 심병용 교수가 수상했다. 심 교수는 암 환자 치료와 연구 실적, 센터장으로서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어 우수상 18명 또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진료 분야를 포함해 교육, 연구 등 여러 방면에서 고르게 활동하며 대학과 병원의 발전과 환자 치료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교수업적평가 포상제도는 교육자의 헌신, 연구자의 끈기, 진료 현장의 책임감 있는 실천까지도 평가의 틀 안에서 공정하게 반영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와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빈  
센터

## 개원 58주년 기념식 거행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최근 개원 58주년을 맞아 개원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1967년 개원 이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성빈센트병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치유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평가 우수부서 시상식에 이어 장기근속자

및 모범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사업계획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서는 인공지능실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은 영양팀, 우수상은 4개 부서(영상의학팀, 적정진료관리팀, 92병동, 응급간호팀)가 각각 수상했다.

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는 기념사를 통해 "당장의 결실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위한 씨앗을 남겨두는 절제와 인내를 뜻하는 '석과불식(碩果不食)'의 자세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 사회 병·의원 강좌 및 실무자 간담회 성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최근 암병원 10층 성바오로홀에서 '제11회 지역 사회 병·의원 강좌 및 실무자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진료협력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병·의원과 의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역대 최다인 40개 의료기관 13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형외과 김동연 교수가 '육창 관리와 치료의 최신 지견'을 강의했고, 이어 진료지원간호팀 고영옥 JMOI '드레싱 방법'에 대한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진료협력센터장 노혜일 교수(이비인후과)는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나눈 지혜가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성모

##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민·관 MOU 체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광역시,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광역시와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천 지역 암생존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증진, 사회적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 치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적·심리사회적 지지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 연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홍승모 몬시뇰 인천성모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암 치료 이후의 삶까지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명감으로, 암생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성모

## 호스피스병동 작은 음악회 개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최근 호스피스병동에서 병동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의 아들과 머느리가 특별 연주자로 나서 대중에게 친숙한 '아베마리아', '마이웨이'를 비롯해 성가 '너근심 걱정 말아라' 등 총 4곡을 첼로와 플루트로 연주해 감동을 전했다.

연주자 김노엘 씨는 "투병생활로 지치고 힘든 아버지와 병동 환우분들, 간병하는 보호자들이 잠시나마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주를 준비했다."며 "특히 아버지의 신창곡을 연주하는 동안 아버지가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연주할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은 환우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미술, 아로마, 원예 등 다양한 요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난치성 혈액암 다발골수종 생존율

## 중앙 생존기간 80개월, 국내 최고 수준 입증!



민창기 교수

[오전] 화, 금 [오후] 화, 금

박성수 교수

[오전] 월, 금 [오후] 목

이정연 교수

[오전] 수, 목 [오후] 월

변성규 교수

[오후] 수, 금

### 국내 평균보다 2배 긴 생존기간

국내 최초로 혈액병원을 설립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난치성 혈액암인 '다발골수종'의 최근 10여 년간 치료 성과를 발표했다. 혈액병원 내 다발골수종 센터 민창기박성수이정연변성규 교수팀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 치료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 1,291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앙 생존기간(Median Overall Survival, OS)이 80.5개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약 33~52개월)보다 약 두 배 가까이 긴 수치다.

중앙 생존기간이란 암 환자가 치료를 시작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전체 환자 중 절반이 생존해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환자별 생존기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average) 대신 중간값(median)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분석은 난치성 혈액암인 다발골수종의 장기 치료 성과를 대규모로 분석·공개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생존 향상의 열쇠, 환자 맞춤 치료 전략

서울성모병원은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단순한 항암제 투여가 아닌, 환자 개인별 위험도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을 펼쳐왔다.

- ✓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적극적 활용
- ✓ 신약 기반 유지요법으로 재발 방지
- ✓ CAR-T, 이중항체 치료 등 최신 면역항암제의 선제 도입

이와 함께 감염내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임상과와 협력하는 다학제 통합 진료를 운영하며, 치료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 치료 성과를 넘어 삶의 질까지

혈액내과 민창기 교수는 "단순한 기계적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특성과 약점에 맞는 맞춤 전략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며 "치료 이후에도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생존기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발골수종센터장 박성수 교수는 "이번 결과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라며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이 생존율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서울성모병원, 국내 다발골수종 치료의 새 기준

이번 생존율 발표는 치료 효과에 대한 신뢰와 과학적 근거를 동시에 보여주는 성과로, 향후 다발골수종 치료에 있어 서울성모병원의 치료 모델이 표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서울성모병원은 면역항암제 반응 예측 연구, 신약 조합 최적화, 환자 삶의 질 평가 등 다각적 연구와 임상을 이어가며 "난치병을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바꾸는 여정"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 다발골수종은?

골수 내 형질세포에 발생하는 혈액암으로, 뼈의 약화(골절), 빈혈, 신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만성난치성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566명이었던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는 2024년 1만 1,219명으로 10년 만에 2배 증가했다.

참 의술 Since 1936

# 사랑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치료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YEUIDO ST. MARY'S HOSPITAL



1월

안과병원, 국내 각막이식 6% 점유... 각막이식 선도

2월

美 뉴스위크 세계 최고 병원 TOP 250 선정(7년 연속)

3월

림프종센터, 혈액암 CAR-T 치료 국내 이례적 실적

4월

비뇨의학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 '리쥬 시스템' 운영

5월

최신 고정밀 방사선 암 치료기 '트루빔' 운영

6월

안과병원, 백내장 수술 최신 장비 '펄스초레이저' 운영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ujb.or.kr](http://www.cmcujb.or.kr)

# 병원 사목회 자원봉사 실시, 5일 동안 총 2,089명 진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한창희) 해외의료봉사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8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2,089명을 진료하며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인술을 전했다.

영성부원장 이상훈 신부가 단장을 맡은 봉사단은 김영문 소아청소년과 교수(의료팀장),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 신장내과 김영수 교수, 혈액종양내과 손덕승 교수, 소아청소년과 채희수 교수, 치과 공화수 외부교수, 영성간호부장 김양희 수녀,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31명의 다양한 직종이 협력해 의료봉사를 제공했다.

특히 코미소 클리닉에서 3일간 고정 진료를, 인근 빈민촌에서 2일간 이동진료를 실시하며 기록한 2,089명은 자체 역대 최대 진료 기록이다.

2012년부터 이어온 의정부성모병원의 해외 의료봉사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으며, 봉사단은 전원 건강하게 귀국했다. 병원 측은 앞으로도 가톨릭 정신에 기반한 생명 존중과 나눔의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에 이은  
부천성모병원 성가자선회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상 대상 수상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복음 10,37]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가장 아픈 이웃을 향해 걸어온  
성가자선회의 발걸음은 계속 됩니다.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ep.or.kr](http://www.cmcep.or.kr)

# 혈액병원 조혈모세포이식 500례 달성



## 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 조혈모세포이식 500례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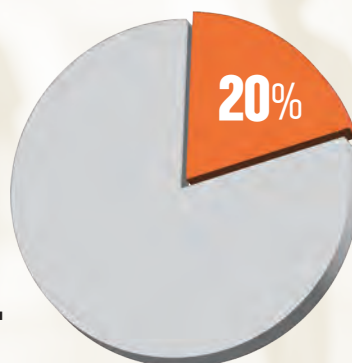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EUNPYEONG ST. MARY'S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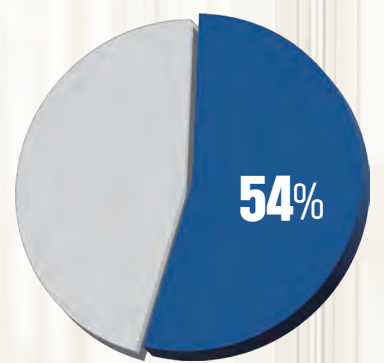


### 고령자 및 고난도 이식 역량 입증, 2년 연속 전국 6위

- ☑ 수도권 서북부 **중증혈액질환** 핵심 거점
- ☑ 다학제 협진을 통한 **환자 맞춤형 치료**
- ☑ 이식 전용 무균 병상을 비롯한 **최상의 치료 인프라**
- ☑ 세계 최고 수준의 **가톨릭 혈액병원 네트워크 중심**



고령·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난도  
동종이식